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쫘고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코포 바사노作 (1592)

제1독서: 신명 30,10-14

제2독서: 콜로 1,15-20

복음: 루카 10,25-37

가톨릭 성가

입당: 64

봉헌: 41

성체: 497

파견: 46

### ◆ 화답송



(후렴) 가난한 이들이야,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 - 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오지랴 넓히기”

어느 겨울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행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괜한 참견으로 저녁시간을 방해받을까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진 채 그냥 지나치던 찰나 오지랴 넓은 동료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출동 부탁드립니다.”

“오지랴가 넓다”라는 말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가리지 않고 젖을 먹인다’는 의미가 있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오늘 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꼭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사제와 레위인이 이해가 되고 때론 그들을 변호하고 싶어진다. 그땐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 드릴 제사와 성전에서의 봉사를 위해 참으로 바빴을 것이고 시간이 되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점점 지나치는 것들이 많아지고 참견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아진다. 손수건을 떨어뜨린 앞 사람에게도, 어느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말에도, 언덕을 오르는 할머니의 숨 가쁜 소리에도...

오늘 나의 오지랴는 어느 정도일까? 누군가를 위해 잠시 멈추어 설 줄 알고 사랑 때문에 가던 길을 조금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웃을 위한 오지랴’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므로.



오지랴는  
우리가  
이웃을  
위한  
것이다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2,950
● 감사헌금	\$ 100
● 합 계	\$ 3,050

❖ 교무금 :

이기원 김성모 이영숙 엄청자 윤희구  
 신윤길 오동훈 홍봉운 양복연 박희정  
 유미경 유경자 이희철 김택영 홍 범  
 장철순 노혜영 임영애 김보현 배인철  
 이정자 송명자 경원유 이병국 이경자(벨)  
 김미화 셸리나해지스 김창훈 김애희  
 윤미하 윤동진 마봉한 이경자(울) 윤복홍

❖ 감사헌금 : 이정자

❖ 꽃봉헌 : \$20 이정자

◆ 미 사 봉 헌

● <u>연미사</u>	봉헌
박남성 요셉프란치스코 이태묘, 이영우 이현재 요한 김영 보나벤투라 이상덕	이경자(울),이영애, 이병국 이상홍 스테파노 이수영 프란치스코 김승애 클라라 이미숙 안나
● <u>생미사</u>	
양미숙 마리아 가족 이병국 가족 강건대 마리아 김인숙 로사, 김은희 에스텔 안수관 토마스 이안나 레지나 가족 이재호클레멘트, 이진자세실리아 박재호베네딕도, 박현자엘리사벳 김보찬 베네딕타	선명희 노아 이양순 마리아막달레나 김지영 유스티나 이영애 레지나 희망의 모후Pr 익명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사랑의 샘Pr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도**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b/t 40&41st)  
 212.203.0072(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기억하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니콜라이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란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야."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중에서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7월 14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원준성 프란치스코	박시현 마리아	이미진 그레이스	김예슬 아네스	김영건 여다원	오윤서 김하나	민완준 유정옥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김승애 홍민철 조리디아
7월 21일	차지욱 안토니오	박종섭 요한	홍지혜 클로틸다	이원지 베네딕타	최진영 수산나	표해심 손명희	신혜정 임유진	백이백 김영숙 김중선 신정묵 유정옥 유기호 장혜윤 이정현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꾸리아**가 21일 야외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메리놀 수도원(55 Ryder Rd, Ossining, NY 10562)이며 미사 후 출발합니다.

➢ **양업회**가 오늘 야외행사를 합니다. 미사 후 출발하며 장소는 Central Park(East 72<sup>nd</sup>st) The Loeb boathouse입니다.

➢ **연령회**가 오늘 10시40분에 아래성당에서 시작하며 고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님을 위한 연도는 11시부터 합니다.

➢ **성모회**가 오늘 11시에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요셉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9월 확대회의 안내

대상 : 사목위원, 단체장  
일시 : 9월 29일(주일) 11시, 교육관 3층 5호실

➢ 2020년 부활절 세례 및 견진 교리반 모집

기간 : 2019년 9월 22일 ~ 2020년 4월 5일  
세례 및 견진일 : 2020년 4월 11일(토)  
일시 및 장소 : 매 주일 오전 10:50~12:10/교육관 5호실  
문의 : 김 켈레스틴 수녀 347.834.5784

➢ 7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방학)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21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미동북부 성령 대회

일시 : 7월20일(토) 9am~9pm, 21일(주일) 9am~5:30pm  
차량지원을 받는 교우분들은 아침 8시, 성당 앞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 미국분당 175주년 기념행사

St. Francis 성당의 175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책자 편찬에 교우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칼라 광고> : 전면광고 \$500 / 1/2 \$300 / 1/4 \$200

<기부자 리스트> : 개인 혹은 가족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실어드립니다(\$50). 2019년 8월 1일 마감.  
<https://stfrancisnyc.org/175th-anniversary-commemorative-book/>

➢ FYNY 청년회 2019 여름캠프

"젊은이야, 네 젊은 시절에 즐기고 네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여라." (코헬 11,9)

장소 : Iroquois Springs 66 Bowers Rd, Rock Hill, NY  
일시 : 8월 16일(금) 오후 7시 성당출발  
~ 8월 18일(주일) 오후 2시 (2박 3일)

참가비 : \$160(Non-refundable)

문의 : 박승민 토마스 아퀴나스

전화 : 917-842-8318 / 카톡 tomato6

신청서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NXTThVs8Nck1\\_EFmS8JY9Cn0gIP0ukKatJrKABbOavfERw/viewform?usp=pp\\_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NXTThVs8Nck1_EFmS8JY9Cn0gIP0ukKatJrKABbOavfERw/viewform?usp=pp_url)

➢ 청년 성가대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모집

1.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2.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뉴욕/뉴저지 제4차 선택 주말(NY/NJ Choice Weekend)

청년 선택 주말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들로 준비되었습니다. '속함'의 진정한 의미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소중하고 뜻깊은 체험이 되리라 믿으며, 여러분을 선택주말에 초대합니다!

날짜 : 8월 31일(토) 10am - 9월 2일(월) 3pm

대상 : 1981~1997년생 미혼 남녀 (한국어권, 영어권)

장소 : 뉴튼 수도원

신청: [www.choicenynj.com](http://www.choicenynj.com) (마감일 : 7월 31일)

문의: [choicenynj@gmail.com](mailto:choicenynj@gmail.com)

신청비 : \$250 (\$50 non-refundable deposit)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축하합니다!!

7월 4일, 동북부 37차 지구울뜨레야 지구대회에 우리 본당이 본상인 사랑'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간사인 채봉석 그레고리 형제가 울뜨레야 발전에 대한 공로로 사무국이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성경 맛들이기” -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의 첫 예언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 중의 예언서이다. 이사야 예언서는 분량이 많아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와 함께 대(大)예언서에 속한다. 그 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언서 12권을 소(小)예언서 라고 한다.

**이사야서의 저자**

‘아훼께서 구원하시다’, 또는 ‘아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사야 예언자와 그 제자들이 저자이다. 한 권을 셋으로 나누어서(1-39장 ; 40-55장 ; 56-66장) 저술하였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정신 아래 작업이 이루어졌기에 한 작품으로 본다. 각 부분을 맡아 쓴 이들을 각각 ‘제 1 이사야’, ‘제 2 이사야’, ‘제 3 이사야’ 라고 부른다.

**집필 연대**

세 차례에 걸쳐 쓰였다. 제 1 이사야 부분은 기원전 740년부터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왕이 교체되기까지 약40년 동안, 제 2 이사야 부분은 바빌론이 멸망할 무렵인 기원전 550년에서 이스라엘의 귀향을 허락한 키루스 칙령(기원전 538년)이 내려지기까지 약 10년 동안, 제 3 이사야 부분은 귀향 후에 쓰였다. 이 모두가 한데 모아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사야 예언서가 되었다.

**시대적 배경**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왕국 귀족계급 출신으로, 기원전 765년경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인물이다. 우찌야 왕(781-740)이 죽던 해인 740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소명을 받고(6,1-13) 예언활동을 전개한다. 당시의 유다는 아모스 시대의 북 이스라엘처럼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으나, 사치와 권력 남용 등으로 사회가 부패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는 아모스처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예언자로 활동한다(1-5장).

이사야 예언사명은 요탐(740-735), 아하즈(735-716), 히즈키야(716-687) 시대까지 이어지나, 아하즈 시대인 73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기간 동안 공생활을 중단하고 은둔생활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그 유명한 “임마누엘서”(6-12장)가 집필되었으리라 추측한다. 이사야는 천부적인 종교적 감성을 지닌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대(大) 시인들 중의 한사람으로 손꼽힌다. 그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바로 이들 제자들(이사야 학파)에 의해 자신의 이념과 사상이 계승되어 제 2 이사야서(40-55장)와 제 3 이사야서(56-66장)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이 외세에 침략당하고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뿐임을 역설한다. 또 주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며,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정의와 평화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치와 방종과 교만에 차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정의의 실천을 도외시한다고 말한다. 이사야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내용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포악함과 불의로 인하여 하느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서는 징벌과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징벌 뒤에 당신을 믿고 성실히 따르는 사람들을 살아남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메시아 왕,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제 1 이사야서의 구조**

구 분	내 용	
전반부(1-27장)	1-12장	이스라엘에 초점을 둔 예언들
	13-23장	이스라엘 뿐 아니라 주변민족까지 아우르는 예언들
	24-27장	묵시적인 보도→ 때때로 이 부분을 ‘이사야 묵시록’이라 부르기도 함
후반부(28-39장)	28-32장	유다,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
	33-35장	주변 민족들까지 아우르는 예언들
	36-39장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보도